

칼럼

김수중 뉴스1 코본



사우디-러시아-미국의 유가 전쟁

3월 초순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減産) 합의의 실패로 유가가 폭락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다. 휘발유 값이 내릴 것이다"라는 트위터 글을 날렸다.

3월 초순 이후 유가가 광란의 내리막 춤을 추고 있다. 3월 말 세계 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값이 배럴당 20달러로 곤두박질했다.

가 아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식당에 안 가니 가게들이 망하고 해외여행이 뜰 끊기니 항공사와 여행사가 문 닫을 지경이다.

3월 내내 이렇게 유가폭락을 방관하던 트럼프가 지난 2일 모하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미국 내 석유업자들이 망한다고 아우성치고 미국 관리들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던 모양이다.

3월 같은 25만 톤 유조선 한 척에 원유 19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다. 이런 유조선 80여 척이 원유를 가득 실은 채 갈 곳을 못 찾은 채 세계 여러 나라 해안에서 빈둥대고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석유 소비가 크게 줄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석유 수요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던 차에 코로나 사태가 더해져서 중국의 경제활동과 에너지 소비가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트럼프의 허세와 함께 미국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우디와 러시아 측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아직 없으니, 바이러스 사태로 정진하는 트럼프에게 유가폭락은 긴급한 과제다.

유가하락을 견인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석유 수요가 격감하고, 미국의 세일석유 생산으로 원유시장이 공급과잉 상태가 된 것이다.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유가하락의 큰 요인이 또 있었다. 미국의 '세일혁명'에 의한 석유 공급 과잉이다. 세일 석유를 둘러싼 두 산유국 사우디와 러시아의 신경전이 복잡한 판에 바이러스 사태가 밀려들면서 '유가의 광란'을 촉발한 것이다.

한때 2000원에 육박했던 서울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요즘 1300원대다. 저렴한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여행하기 딱 좋은 봄이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이 무섭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엄격해지니 나들이 분위기가 아니라.

2008년은 사우디를 종가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의 석유공급지배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난 해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의 석유소비도 급증하면

서 한때 배럴당 145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계는 고유가 시대를 예고했다. 당시 분위기로는 유가가 두 자리 수로 되돌아오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바로 이런 고유가에 힘입어 미국이 지하 1000미터 깊이의 셰일(頁岩 혈암)층에 부존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내는 '수압파쇄공법'이라는 신기술을 발전시켰다. 이 셰일혁명으로 미국은 50년 만에 사우디를 제치고 1위 산유국 지위를 탈환하고 OPEC의 석유 패권을 약화시켰다.

사우디와 러시아에게 오일머니는 국가재정에 절대적이다. 석유 값이 올라야 재정이 단단해진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유가 하락 방지를 위해 2016년 손을 잡았다. 사우디가 이끄는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비(OPEC)산유국들이 합쳐서 오펙플러스(OPEC+)를 구성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석유 값이 상승하면 환율을 쉬고 하락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번엔 과거와 같이 저유가를 구가할 여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중국처럼 저유가를 활용할 전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社說

수치로 드러난 코로나19 실업 대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실업대란이 현실로 닥쳤다. 일자리를 잃고 새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실업자가 지난달 15만6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에서 시작해서 다른 산업 쪽으로 매출 감소를 견디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쪽으로 퍼질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 전반이 실업대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였던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작년 동월 대비 2만7천명 늘어난 데 이어 폭도 확대됐다.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으로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고용조정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표로 드러난 셈이다.

경영이 어려워도 휴업·휴직으로 버티며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도 요즘에는 하루 2천건 안팎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가 1천500건 남짓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천명), 제조업(1만9천명), 건설업(1만6천명), 도·소매업(1만5천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천명) 등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이런 고용조정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번 잃어진 일자리는 다시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폐업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쓰고 더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미 발표한 비상경제대책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더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명·한식 전후 임야화재예방은 이렇게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해 936,14ha 산림을 태우고 사망 2명, 부상 10여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단일화재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가 동원되었다.

3월(556건)이 제일 많고, 4월(383건)이 그 뒤를 따랐다. 전체 임야화재의 42%가 3~4월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임야화재는 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연은 다름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실화, 등산객들의 담뱃불, 그리고 논·밭두렁 소각 또는 쓰레기 소각 중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거의 대부분이다.

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사람의 부주의에 따르는 사고를 줄여야 한다. 등산 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품은 휴대하기 말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자.

소방청에 따르면, 전년도 전국 임야화재는 총 2,211건으로 산불은 1,005건, 들불은 1,206건이 집계되었다.

또한, 봄철 임야화재의 주요요

특히, 청명, 한식, 식목일 전후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작은 화기취급 부주의가 자칫 대형화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